

#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 자료집

： 2008년 03월 21일(수) 16시

장소 : 경북대학교 복지관3층 교직원회의실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주관**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등록금네트워크



# 목차



■ 발제문 ..... 1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나?

박정원( 부위원장,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문 ..... 19

1 강남훈(교수노조 사무처장, 한신대 교수) ..... 19

토론2 강금수(대구경북등록금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21

토론3 강신우(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대구경북추진위원장) ..... 23

토론4 은재식(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25

토론5 양윤경(경북대 교육투쟁위원회 위원장) ..... 27

■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 29

# 토론회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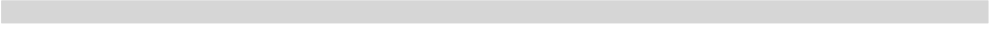
	식 순	토론회 내용	진 행
16:00		<p>열림식</p> <p>■ 인사말 : 유병제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p> <p>■ 내빈 소개</p>	<p>사회 : 최병진</p> <p>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장</p>
16:20 ~ 16:50		<p>■ 발제</p> <p style="text-align: center;">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p>	<p>박정원</p> <p>교수노조 부위원장</p>
16:50 ~ 17:40	토 론	<p>■ 패널 토론</p> <p>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 한신대 교수</p> <p>강금수 대구경북등록금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p> <p>강신우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대구지역추진위원장</p> <p>은재식 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p> <p>양윤경 경북대학교 교육투쟁위원회 위원장</p>	패널 토론자
17:40 ~ 18:00		<p>■ 상호토론 및 질의 응답</p> <p>■ 정리발언</p>	패널 및 플로어
18:00	닫힘식	■ 토론회 정리	사회자





#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 1. 대학등록금이 높은 이유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학등록금이 또 대폭 인상되었다. 최근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 거의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등록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는 고통은 엄청나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은 등록을 포기하기도 하며, 또 어떤 학생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 알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알바를 하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등록금은 보통 대학간 담합에 의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997년 *Wall Street Journal*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등록금담합 행위를 “OPEC가 부러워할 가격결정 체제” 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07년 한국에서도 대학 기획처장들이 등록금인상 결정 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대학들의 담합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또, 대학은 대학교육비의 실제상승을 과장하여 등록금을 과대하게 인상하고 있으며, 쓰고 남은 운영비 예산은 다음 해의 등록금 책정에 반영하지 않



고 축적된다.

고등교육은 비교역재로서 생산성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은 투입물들의 임금(교수와 기타 전문직들의)상승률과 함께 상승해야 한다. 따라서 교역재나 생산성이 높은 타 재화들의 시장가격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노동집약적 성격, 고 관리비와 저 효율성, 정부의 과도한 규제, 고가의 투입물, 학생들의 요구증가 등도 등록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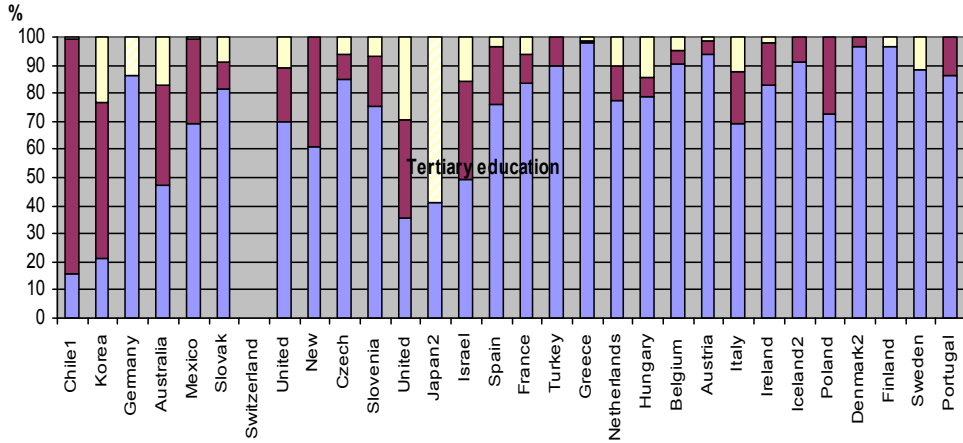
그러나 등록금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시장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에 있다.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와 정책으로 확인되고 있다. ①사립 대학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사실상 영리기관화 되어 있으며 ②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는데다 ③대부분의 교육재정이 사적 부담에 의해 운영되고 ④소득대비 수업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⑤대학교육에서조차 사교육비부담이 상당하며 ⑥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는데다 ⑦등록금 인상을 가져 올 국립대학의 민영화(사립화)가 추진 중인 점 등이 그 증거이다.

#### <차트 1 참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증가 즉, 수업료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표 1>에서 OECD 회원국들의 수업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시장화 정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업료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차트 1> Distribution of public and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고등교육 (2004) 공공지출 + 가계부담 + 기타 민간부담



호주·뉴질랜드·영국 등은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수업료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여기에서 국가적 통제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공급방식은 다양하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국가도 있으며, 고가에 판매되는 국가도 있다.

<표 1> 주요국 4년제 대학 연간 수업료 (2003/2004, U\$, PPP)

구분	국공립대학 (자국민기준)	사립대학
Australia*	5,289	13,420
Canada	3,267	-
Denmark	수업료 없음	-
Finland	수업료 없음	수업료 없음
France	156 - 462	500 - 8,000
Germany	대부분 주 무상 일부 주 소액등록금	-
Italy	983	3,992
Japan	3,747	5,795
Korea	3,623	6,953
Netherlands	-	1,565
New Zealand*	2,538	3,075
Norway	수업료 없음	4,000 - 6,500
Spain	801	-
Sweden	수업료 없음	수업료 없음
Switzerland	566 - 1,132	-
United Kingdom*	-	1,794
United States	4,587	17,777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 2. 대학등록금 문제를 보는 시각

최근 대학등록금 인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지만, 대부분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등록금 액수자체나 인상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에게 있어 등록금은 대학교육을 받는 비용이지만, 대학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며, 국가차원에서는 사회 각 분야 발전의 기반구축 비용이 된다. 따라서 첫째, '저소득계층이 무리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수준인가’ 둘째, 교육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만한 수준인가’ 셋째, ‘국가의 지원은 충분한가’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등록금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대학생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세계최저 수준이다. <표 2>에서 보듯이 한국의 학생1인당 고등교육비는 2002년을 기준으로 겨우 U\$6,047에 지나지 않아, OECD평균 U\$13,343의 절반수준도 되지 못하며 미국의 1/3에도 이르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웬만한 국가의 중고등 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작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표 2> 국가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현황

국가, 교육급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미국	8,049	9,098	20,545
영국	5,150	6,505	11,822
일본	6,117	6,952	11,716
호주	5,169	7,375	12,416
프랑스	5,033	8,472	9,276
독일	4,537	7,025	10,999
덴마크	7,727	8,003	15,183
핀란드	5,087	7,121	11,768
<b>대한민국</b>	<b>3,553</b>	<b>5,882</b>	<b>6,047</b>
<b>OECD평균</b>	<b>5,273</b>	<b>6,992</b>	<b>13,343</b>
말레이시아	1,897	2,923	14,405

\* 2002년 기준, U\$, PPP환산액.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둘째 등록금 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2004년 기준 미국의 1인당 GDP가 \$39,700인 상태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 및 식비를 포함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13,833이고, 사립평균은 \$29,500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4,100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650만원이 넘고 국공립대학은 35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처럼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등록금 수준은 미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 또한 미국의 사립대학이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78%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등록금 부담이 훨씬 높아 세계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의 교육비지원이 너무 작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중이 전체 고등교육비의 15%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 78.1%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민간부담은 81.5%로서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2004 기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액을 우리 돈으로 환산(편의상 U\$1=₩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덴마크 1,486만원, 핀란드 1,133만원, 독일 1,007만원, 프랑스 795만원, 미국 926만원, 영국 851만원, 일본 485만원으로서 OECD 평균 1,042만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돈 90만원에 지나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 3.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이 지닌 노동집약적 성격에다 대학간 담합, 운영비용의 과장, 대학간 경쟁의 격화 등에 의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책정에 있어 인상률 통제(상한제)와 경쟁에서 협조체제로 전환, 대학간 담합감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결정 등이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또 등록금 문제를 대학생만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학교육비를 묶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충분한 교육비 확보가 있어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 수

준은 대학교육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시장화정책에 따라 국공립대학까지도 대학이 등록금 결정권을 갖고 있어 대학등록금 수준은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을 방해할 만큼 높다. 여기에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록금 문제가 검토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등록금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학자금융자제도의 확대는 학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며, 등록금의 절반수준 인하주장은 대학교육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국가의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부담은 낮추면서 전체적으로는 고등교육비를 지금보다 증액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등록금 후불제이다.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수익자인 국가와 개인이 사후에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 4. 등록금 문제 해결방안

1) 단기대책: 대학간 담합근절(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대학의 비용 부풀리기 방지(예결산 공개 및 적립금 낮추기 운동)

2) 근본대책: 등록금후불제 실시, 국가의 교육비 지원 증대(GDP 대비 1.0% 수준으로) 및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GDP 대비 1.8% 부담에서 0.4% 부담으로) 사립대학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사학을 운영해야, 즉, 감동경영이 필요함

## 참고 1: 교수노조 등록금 후불제

### 1. 등록금후불제의 의의

(1) 등록금후불제란 모든 대학생들의 재학 중 등록금을 국가가 대납하며, 국가의 지원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대학교육세를 일정기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등록금 후불제 주요내용

(1) 희망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졸업생은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에 연계하여 국가에 세금(대학교육세)을 납부한다.

(2) 각 년도의 등록금 액수는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여, 대학별 후불제 등록금을 기준으로 +5%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상한제), 등록금 하한선은 없다(규제하지 않는다). 사립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사립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해소해 나간다.

(4) 등록금 액수에서 대학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학별 등록금 책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상한선을 넘어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대학은 등록금 후불제에서 제외한다.

(6) 등록금 후불제 실시 대학은 대학별로 예산과 결산을 등록금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과 감사를 받는다.

### 3. 대학교육세 납부 방법 (4년제 대졸자 기준)

(1) 대학재학 중 후불제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취직이 되어 연봉 2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다음과 같은 비율을 대학교육

세로 납부한다.

총수입	세율	월납세액
2,400만원 이하	0	0
2,401-3,000만원	3%	6.0-7.5만원
3,001-4,000만원	3.5%	8.7-11.6만원
4,001-5,000만원	4%	13.3-16.6만원
5,001-6,000만원	4.5%	18.7-22.5만원
6,001-7,000만원	5%	25.0-29.1만원
7,001-8,000만원	5.5%	32.0-36.6만원
8,001-9000만원	6%	40.0-45.0만원
9,001-1억원	6.5%	48.7-54.1만원
1억원 이상	7%	58.3만원 이상

(2) 후불제 실시에 따른 조세납부액에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실질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다.

(3) 총 납부 연수는 20년으로 하되, 55세가 되면 납부 연수에 관계없이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55세가 될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금액은 면제한다.

#### 4. 관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 (1) 관리조직의 명칭

가칭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이하 등록금 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 정부, 대학당국, 사학재단, 학생 단체, 교수단체, 대학직원단체, 학부모 단체

##### (2) 관리조직의 기능

- ① 후불제 등록금 액수 책정
- ② 대학별 등록금의 승인



- ③ 대학별 예결산의 감사
- ④ 후불제 실시 대상대학의 선정과 감독

## 5. 정부의 역할

- (1) 정부는 등록금후불제 실시를 위하여 고등교육 후불제 기금을 창설한다.
- (2)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대학교육세를 징세한다. 국세행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3)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현재 GDP 의 0.4%에서 매년 0.05%씩 1.1%가 될 때까지 증가시켜간다. 증가되는 예산 부분은 후불제 기금과 대학교육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다.

## 6. 기타

- (1) 학생들은 선택에 따라 후불제를 선택하지 않고 매학기 등록금을 선불로 납부할 수 있다.
- (2) 금융기관은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서 대학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선정하는 등 금융적 차별을 할 수 없다.
- (3) 등록금후불제 실시 전 단계에서, 극빈층과 차상위계층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 7. 각국의 최저 세금납부 소득기준액

호주 \$39,225(3,530만원)부터 141만원(소득의 4%)

영국 £15,000(3,000만원)부터

만일, 3,530만원 이라면 47만7천원(초과액의 9%)

한국 3,530만원 이라면, 1년 세금액은 123만원이 됨.

(예) 연봉 5,000만원 수입 기준 각국의 연 납부액 비교

호주  $\$55,555 \times 0.06 = \$3,333$ (약300만원)

영국  $(\pounds 25,000 - \pounds 15,000) \times 0.09 = \pounds 900$ (약 180만원)

한국 5,000만원  $\times 0.04 = 200$ 만원

, 영국의 세액와 비교(1호주달러=900원, 1파운드=2,000원으로 계산)

2007-08	상환률	상환액수	영국의 상환액수	한국의 상환액수	상환률 (한국)
Below \$39,225 (3,530만원)	Nil	0	47만원 (면제3,000만원)	123 (3,530만원기준)	3.5%
\$39,225-\$44,360 (3,530-3,992만원)	4%	141-160만원	68만원 (\pounds 18,806기준)	131만원 (3,760만원기준)	3.5%
\$44,360-\$48,896 (3,992-4,400만원)	4.5%	179-198만원	107만원 (\pounds 20,982기준)	167만원 (4,196만원기준)	4%
\$48,897-\$51,466 (4,400-4,632만원)	5%	220-231만원	136만원 (\pounds 22,581기준)	180만원 (4,516만원기준)	4%
\$51,467-\$55,322 (4,632-4,979만원)	5.5%	254-273만원	162만원 (\pounds 24,027기준)	193만원 (4,841만원기준)	4%
\$55,323-\$59,915 (4,979-5,392만원)	6%	298-323만원	196만원 (\pounds 25,928기준)	233만원 (5,185만원기준)	4.5%
\$59,916-\$63,068 (4,979-5,676만원)	6.5%	350-369만원	228만원 (\pounds 27,671기준)	249만원 (5,534만원기준)	4.5%
\$63,069-\$69,405 (5,676-6,246만원)	7%	397-437만원	266만원 (\pounds 29,806기준)	268만원 (5,961만원기준)	4.5%
\$69,406-\$73,959 (6,246-6,656만원)	7.5%	468-499만원	310만원 (\pounds 32,257기준)	322만원 (6,451만원기준)	5%
\$73,960 이상 (6,656만원 이상)	8%	532만원 이상	329만원 (\pounds 33,282기준)	332만원 (6,656만원기준)	5%
\$111,111	8%	800만원	630만원 (\pounds 50,000기준)	700만원 (1억원기준)	7%

## 참고 2: 각종 등록금제도

### 1) 등록금후불제(Graduate Tax) :

-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먼저 부담하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갖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더 납부하여 이를 갚는 방식.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다름.

- 등록금후불제 실시 국가 : 호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

-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국에서도 최근 후불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2) 등록금 상한제(Top-up Fee System) :

- 경제이론 상의 최고가격 설정과 같은 의미로서 등록금의 한도액을 국가가 설정하는 제도. 현재 영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음

### 3) 등록금 인상률 통제 :

-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상한제와는 다름.

- 미국의 주립대학은 주의회나 주지사가 인상을 통제함.

### 4) 분할 납부제 :

- 옥스퍼드 대학 등에서는 9-12월 학기가 끝난 후 등록금 1/3을, 1-3월 학기가 끝난 후 1/3, 4-6월 학기 끝난 후 1/3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음.

<표 3>국공립대학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현황(2007)

순위(상위)		등록금 총액(천원)
1	서울대학교	5,437
2	인천대학교	4,953
3	서울산업대학교	4,292
4	서울시립대학교	4,160
5	충남대학교	4,113
6	한국체육대학교	4,082
7	경북대학교	4,074
8	전남대학교	3,996
9	충북대학교	3,954
10	부산대학교	3,948

<표 4> 사립대학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4년제, 2007)

순위	학교명	등록금총액 (천원)
1	대구예술대학교	8,150
2	을지의과대학교	8,114
3	추계예술대학교	8,106
4	이화여자대학교	7,917
5	아주대학교	7,822
6	가천의과학대학교	7,735
7	수원대학교	7,725
8	고려대학교	7,687
9	숙명여자대학교	7,653
10	상명대학교	7,651
11	홍익대학교	7,648
12	한양대학교	7,633
13	연세대학교	7,630
14	백석대학교	7,621
15	호서대학교	7,619
16	한세대학교	7,592
17	명지대학교	7,528
18	경원대학교	7,517
19	한서대학교	7,515
20	포천중문의과대학교	7,485

<표 5>전문대학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2007)

순위(상위)	학교명	등록금 총액(천원)
1	서울예술대학	7,576
2	동아방송예술대학	6,894
3	계원조형예술대학	6,743
4	동서울대학	6,603
5	인하공업전문대학	6,370
6	백석문화대학	6,337
7	적십자간호대학	6,262
8	아주자동차대학	6,245
9	청강문화산업대학	6,238
10	부천대학	6,233
11	여주대학	6,213
12	신구대학	6,190
13	동의과학대학	6,141
14	서울여자간호대학	6,119
15	부산정보대학	6,111
16	동양공업전문대학	6,105
17	동원대학	6,095
18	경기공업대학	6,095
19	두원공과대학	6,080
20	백제예술대학	6,067

<표 6> 사립대학 재정구조 현황(2006년)

	4년제대학	2년제대학
등록금수입	77.4%	89.4%
전입금	9.1%	1.7%
기부금	4.1%	0.7%
국고보조금	1.5%	1.2%
교육부대수입	3.3%	2.1%
교육외수입	4.5%	4.9%

<표 7> 2006년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전입비율 0%인 사립대학(천원)

순번	대학명	법정의무부담 재단전입금액	법정부담전입금 결산액	의무부담대비 전입금비율
1	진주보건대학	218,091	-	0.0%
2	조선이공대학	415,233	-	0.0%
3	조선간호대학	80,199	-	0.0%
4	제주산업정보대학	276,485	-	0.0%
5	전주기전대학	195,568	-	0.0%
6	적십자간호대학	88,904	-	0.0%
7	오산대학	462,140	-	0.0%
8	영진전문대학	725,448	-	0.0%
9	영남이공대학	543,128	-	0.0%
10	영남외국어대학	158,743	-	0.0%
11	양산대학	322,295	-	0.0%
12	안동과학대학	365,433	-	0.0%
13	아주자동차대학	125,169	-	0.0%
14	신성대학	327,374	-	0.0%
15	성덕대학	103,158	-	0.0%
16	서해대학	218,034	-	0.0%
17	서정대학	100,141	-	0.0%
18	서일대학	741,143	-	0.0%
19	서울예술대학	333,272	-	0.0%
20	서라벌대학	337,227	-	0.0%
21	삼지영서대학	300,684	-	0.0%
22	삼육보건대학	117,964	-	0.0%
23	부산예술대학	74,627	-	0.0%
24	문경대학	83,453	-	0.0%
25	두원공과대학	421,557	-	0.0%
26	동주대학	400,774	-	0.0%
27	동양공업전문대학	612,147	-	0.0%
28	동아방송예술대학	293,930	-	0.0%
29	동부산대학	269,805	-	0.0%
30	대덕대학	495,801	-	0.0%
31	대구산업정보대학	333,917	-	0.0%
32	대구보건대학	571,212	-	0.0%
33	대구공업대학	261,476	-	0.0%
34	나주대학	150,596	-	0.0%
35	국제대학	267,536	-	0.0%
36	구미1대학	291,054	-	0.0%
37	공주영상대학	297,282	-	0.0%
38	계명문화대학	555,258	-	0.0%
39	경원전문대학	681,465	-	0.0%
40	경북대학	275,582	-	0.0%
41	경기공업대학	304,749	-	0.0%
42	거제대학	170,331	-	0.0%
43	강원관광대학	132,114	-	0.0%
44	강릉영동대학	334,367	-	0.0%

<표 8> 하버드대학의 총수입 (\$2,999,583,000. 약3조원) 구성 2006년  
 결산

항목	총수입 대비 비중
(학생등록금 총액 - 장학금)	21%
경상 기부금	7%
자산 운용 수입	31%
기타 수입	20%
정부 장학금과 연구계약금	17%
비정부 부문 장학금과 계약금	4%

## 토 론 문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 한신대 교수)





## 토 론 문

(대구경북등록금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토 론 문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대구경북추진위원장)



## 토 론 문

(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토 론 문

(경북대학교 교육투쟁위원회 위원장)







##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